

2018년 5월 9일

emerics@kiep.go.kr

## 한·미얀마, 자동차 산업 협력 본격 추진



©REUTERS

- 2018년 4월 23일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탄 민 상무부 장관은 미얀마 네삐도에서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자동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도 현지 파트너를 통해 미얀마에 자동차 반제품수출(SKD) 방식의 승용차 조립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 양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곤 북부에 72만 평,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건설 중인 한·미얀마 산업단지를 한국의 수출용 자동차 생산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함.
  - 1,599cc의 한국 소형차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1,499cc 이하의 일본 소형차는 특소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탄 민 장관에게 미얀마의 소형차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함.
  - 현대자동차그룹은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에 투자함으로써 아세안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자 함.
- 아웅산 수찌 정부의 우측핸들 중고차 수입 금지 정책에 따른 미얀마의 신차 수요 확대와 높은 시장 잠재력, 경제통합 진전으로 인한 아세안 자동차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이 양국의 자동차 산업 협력 본격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수찌 정부는 2017년부터 우측핸들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뿐 아니라 신차 판매 촉진과 현지생산투자 장려를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미얀마는 1990년대 이후 군부정권의 민간인 자동차 수입 제한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노후화 차량 비중이 높았으며, 2012년 민간수입 자유화 이후 우측통행인 미얀마 도로에 일본산 우측핸들 중고차가 대량 수입됨에 따라 교통안전이 크게 저해됨.<sup>1)</sup>
  - 미얀마 자동차 시장이 중고차에서 신차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본, 중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신차 판매 및 생산을 확대해왔음.

1) 2013년 미얀마의 인구 1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3명으로 태국(36.2명)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임(세계보건기구).

- 2016년 12월 미얀마 최대 딜러사인 Sakura Trade Centre의 스즈키 신차 전시장 오픈, 스즈키의 연간생산능력 1만 대의 양곤 신공장 착공, 2017년 중국 윈난성 Shining Star Group(星耀集团)의 연간생산능력 1만 대의 만달레이 신공장 설립 발표 등이 이루어짐.
- 현대자동차그룹은 2013년 코라오홀딩스와 현지 업체의 합작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미얀마에 진출하였고 올해 SKD 생산으로 진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미얀마는 동남아 국가들 중 자동차 시장이 아직 작고 인구대비 자동차 비율이 낮으나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 할 수 있음.
  - 2017년 미얀마의 자동차 판매량은 8,225대이며 생산량은 4,930대임.<sup>2</sup>
- 2015년 단일생산기지와 단일시장을 목표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였고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역내 완성차 수입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제3국 자동차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됨.
  - 2017년 현대자동차그룹은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경기호조로 최근 5년 자동차 판매증가율 30%를 기록 중인 베트남에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설립함.
  -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7년 말레이시아 국민차인 프로톤의 지분 49.9%를 인수하며 아세안 역내 무관세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와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함.
- 한국과 미얀마의 자동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중·일의 아세안 자동차 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2018년 2월 발표한 정국운영방안(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에서 광공업 및 서비스업 부문 고용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전후방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협력에 적극적일 것임.
    - 자동차 산업은 생산, 유통, 이용단계에서 철강, 기계 등의 제조업, 금융업, 운송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용유발효과가 커져 아웅산 수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3차 산업 발전과 고용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미얀마의 건설업과 관광업이 2018~2022년 각각 11.1%,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용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얀마 정부도 노후화된 대중교통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음.<sup>3</sup>
  - 한국 자동차기업이 미얀마, 나아가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입장벽을 비롯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함.
    - 아세안 자동차시장은 일본이 이미 완벽하다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이 베트남과 미얀마를 발판삼아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RoO)을 충족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며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구축할 현지 협력업체들을 확보해야만 할 것임. **EMERiCs**

2) ASEAN Automotive Federation. <http://www.asean-autofed.com/> (검색일: 2018. 4. 30).

3) BMI. 2018. "Cambodia, Laos and Myanmar Autos Report Q2 2018."

(작성: 김미림 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